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794 호 The Seungni Shinmun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핵보다 강한 힘 가진 마귀 싸워 이겨야 태풍 막게 돼

구세주의 5대 공약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 태풍 못 불어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해마다 한반도로 불어온 태풍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분명히 태풍이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강한 바람에 간판이 떨어지고, 정박한 배들이 큰 파도에 파손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람이 태풍을 막는다!"고 설교 단상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다.

2009년 북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개수는 '이름이 없는(Unnamed)' 허리케인 2개를 포함한 총 11개이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2009_Atlantic_hurricane_season

구세주의 권능을 증거할수록 대적 마귀도 거세게 반발한다

승리제단에 나와서 구세주를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저번처럼 남해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서처럼 태풍을 순식간에 소멸키시든지 아니면 제주도 앞바다에 오기 전에 저 멀리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불어가게 밀어젖히든지 왜 안하실까? 공연히 세상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의 빌미가 안 되면 좋을텐데…"하는 염려를 누구나 한번쯤은 했으리라.

그러나 구세주께서 "태풍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보다 1만 배나 더 큰 위력을 가진 태풍이라는 마귀 신과 맞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아내는 구세주 하나님의 곤고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승리신문 1면 톱기사에 "조희성 구세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 – 한국에 태풍 절대 못 불어온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달고 기사를 내면, 공중신(空中神)인 마귀를 신봉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신(不信)의 저주파와 결합한 태풍은 구세주 권능의 공약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더욱 더 무시무시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하는 가운데 한반도로 돌진해오는 것이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주변의 기후 조건이 갑작스럽게 변화된다

아무리 슈퍼 태풍일지라도 한반도 근처에 오면 소멸되거나 어김없이 약해지는 것은 1981년 구세주 출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어떠한가? 19호 하비기스 태풍으로 일본 전역의 천만 명에 대해 피난지시나 권고까지 내려졌던 것이다.

사실 올 들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세고 규모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10월 7일 기상청 예측에 의하면 그 진로가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때마침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옴으로써 그 영향으로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수축되는 현상이 일어나 하비기스 태풍은 일본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던 것이다. 이렇게 10월 8일에 내륙에는 15년 만에 가장 빠른 10월 한파특보가 내려져 쌀쌀한 겨울철 날씨를 보였던 이유는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기 위한 구세주 하나님의 예지(叡智)와 권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성경 밖으로 나오신 구세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아직도 성경 속에 갇힌 무능한 하나님에 의존하는 기성 종교인들

"나는 기도 중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엘리야와 함께하게 한 7,000명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7,000명의 기도 용사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리케인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 2009년 10월 10일 모두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외치며, 기도군대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 이야기는 도미니카 전 지역은 물론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었다. 그 날, 7,000명의 기도군사가 모였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에서

2009년 10월 6일에 발생한 허리케인 앙리(Henri)가 도미니카 중심부로 불어왔을 때에는 세력이 약화되어 섬에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10월 11일에 도미니카와 아이티 사이에 있는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소멸되었다. 이리하여 기도군대의 캠페인은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그해 북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마지막 폭풍이었던 아이다(Ida)는 11월 4일 카리브해 남부에 형성되었는데, 북쪽으로 진행하면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그리고 유카탄 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집을 파괴하고 수만 명을 피난길에 오르게 했으며 아이다의 간접 영향권에 있었던 쿠바에는 폭우로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아이다(Ida)는 멕시코만을 가로질러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 해안까지 도달했지만 미국 내륙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11월 10일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었다. [※아이다(Ida) 이동경로; 위의 그림 좌측 하단 참조]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허리케인을 물리쳐주시옵소서!"라는 7,000명의 기도군사 모집 캠페인을 했을 때, 미국과 도미니카에 있는 방송국이 자발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내며 관심을 보였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報應, reward)으로 강력한 허리케인 앙리(Henri)와 아이다(Ida)의 재앙으로부터 위의 두 나라만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허리케인의 진로를 변경시키거나 곧장 불어오는 바람을 죽여 버리는 주인공은 기성 종교인들의 숭배대상인 성경 속에 갇힌 무능한 하나님(또는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사로잡혀 전지전능을 상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구세주 하나님(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전 세계 만민들이 깨닫는 날이 빨리 와야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좋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이라든지 미국, 대만 등 다른 나라에도 승리제단이 곳곳에 세워지면 어떤 이로움이 생길까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승리제단이 세워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聖殿)을 건립한다는 뜻이다.

가령 일본 각지에 승리제단을 세우고 제단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여 예배를 본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본 내륙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그리고 태풍과 폭우와 같은 기상·기후 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승리제단에 나오는 신자들이 이긴자 구세주님의 가르침 즉 전지전능한 하나님(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배워서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나(我)'라는 자존심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영력(靈力)의 상승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의 빈도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긴자의 발자취를 따라 '나'라는 선악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 기필코 자존심을 죽이고자 하는 도인(道人)들을 수용한 승리제단이 많은 대한민국은 21세기에 가장 축복받은 나라임에 분명하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69〉

"하늘나라 숫자의 비밀"

하늘의 완전수가 3수요, 땅의 완전수가 4수다. 계시록에'네 생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땅의 완전한 의인을 말한다. 24장로도 24명을 말함이 아니고 하늘의 3수인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를 말한 것인데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계시록에 각 지파에서 일만 이천(一萬 二千)이라고 해서 144,000이라는 것은 바로 삼(三)수요, 12수의 일만 이천도 삼(三)수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수학이며 숫자의 비밀이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우리나라를 '삼천리강산'이라고 불러 왔으며 '열두대문',' 금강산 일만 이천봉(一萬 二千峰)'등의 명칭을 갖고 있다. 이 모두가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오시게 되어 있는고로 그와 같은 명칭이 있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세번째

치매예방 프로젝트2 머리 쓰고 몸 움직이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2가지는 암과 치매라고 답합니다. 이런 질병이 얼마나 사람에게 크나큰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건망증 예방하기 다음으로는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논문들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과 운동이 치매와 인지장애들을 예방하고, 증상이 시작된 뒤 악화를 늦춘다는 공통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나쁜 스트레스가 수반되어서는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공급을 늘리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활성화시켜 기억력, 집중력, 인내력이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관리 못 하는 것은 죄악

어떤 사람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자랑스럽게는 아니지만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아니 큰 죄악을 짓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불이익을 끼치는 것만 죄악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뿐인 귀한 생명을 제대로 관리 못한 죄가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치매가 두렵고 질병기피대상의 첫 번째라 할 것이 아니라, 치매예방을 위해선 있는 자리에서라도 맨손체조를 한다든가, 제자리 뛰기라도 해서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곧 뇌신경과 근육의 활발한 움직임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잣병이 '당뇨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말로 치매는 '게으름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인격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치매예방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타인에게나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덕이 되는 일에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쓴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나 여겨집니다. 좋은 마음과 건전한 사고로 움직이는 심신활동은 산삼과 어떤 비싼 건강보조 식품보다 더 좋은 보약이 될 것입니다.

뇌에는 우리 몸의 감각 또는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30퍼센트나 됩니다. 손을 움직이면 운동감각, 사고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경사스러운 일에만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박수를 즐겁게 자주 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아이들에게도 손을 탁자 위에 고정시킨 채 절대 못 움직이게 하고 얘기하게 하면, 손을 쓸 때보다 단어나 표현이 덜 유창해지고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이라 말과 표현을 할 때, 유난히 손과 몸을 써가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주위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치매예방에 좋을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39주년 승리절 경축 행사 하이라이트

한없는 영광을 드려도 부족한 구세주의 승리

보광패션 여청들의 워십댄스

승리절! 산천초목이 이긴자 출현을 기뻐한 날! 그러나 오직 인간들만 그분의 출현을 몰랐던 그 날!

바로 이 날, 우리는 춤과 노래로 이긴자 출현을 39년째 기뻐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손뼉치며 구세주의 승리를 높이 외쳐 찬양했다.

구세주란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존재! 자신의 육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들의 구원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 희생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오직 눈물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그분을 닮아 이 한 몸을 불살라 당신의 뜻을 기필코 이 땅에 구현하는 데 바치리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9 6.19. 보광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

2019 8.12. 성탄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

2019 8.12. 성탄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